

오차노미즈여대에서의 생활

숙명여자대학교

임도이

저는 숙명여대에서 제 1 전공으로 컴퓨터과학을, 복수전공으로 일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차대에서는 공창공학부 인간환경과학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도교수님이신 오구치 선생님의 소속에 따라 배정된 전공일 뿐 전공 수업은 정보과학과 수업만 수강하였습니다.

1 년간의 교환학생 파견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졸업 학점을 위한 정보과학과의 전공 수업 수강, 둘째, 아르바이트를 통한 연습이었습니다. 아직 유학 생활이 한 학기 남아 있지만, 1 월 현재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어 기쁩니다.

2024 년 후기 기준 정보과학과 전공 수업으로는 '컴퓨터네트워크 1', '정보학연습 1', '컴퓨터시스템서론' 세 과목을 수강했고, 유학생 수업은 네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또 12 월부터는 무인양품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일본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많이 가지 못했지만, 주말에 공원에서 열린 플라마켓을 구경하거나, 전시회에 가거나, 새해 첫날 신사에 가는 등 작은 즐거움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토익 시험도 응시해 보았는데, 새로운 경험이라 재미있었습니다. 튜터인 호리 상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근황을 나누면서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 생활이나 적응에 있어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구치 선생님과 튜터 호리 상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분 덕분에 일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오구치 선생님께서는 월말마다 제출하는 후리카에리 시트에 매번 답장을 해 주셨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호리 상은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면담을 해 주셨는데, 면담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즐거웠습니다. 또한, 정보과학과 전공 수업 수강을 허가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재미있게 수강했고 전공 지식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제과 담당자분들과 하기와라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JASSO 장학금을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국제과를 찾아가면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유학생 수업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유학생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조별과제에 부담 없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이 파견 온 한국인 유학생들에게도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